

체육인들 변화 열망 '체육계 정권교체' 이뤘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 탁구협회장 맡아 행정 경험 풍부 분열된 체육계 통합 등 과제 즐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기호 3번 유승민 후보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209표 중 417표를 획득해 5명의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엔 이기흥 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탁사협회 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이상 기호순) 6명이 출마해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기흥 후보가 379표로 유승민 후보에 이어 2위에 머물러 3선에 실패했다. 강태선 후보가 216표, 강신욱 후보가 120표, 오주영 후보가 59표, 김용주

후보가 15표를 각각 얻었다. 무효는 3표였다.

이번 선거엔 선거인단 2244명 중 1209명이 참여, 투표율은 53.9%를 기록했다. 유승민 당선인의 득표율은 34.5%였다.

유 당선인의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후보와 선거인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았던 이번 선거는 다른 후보들의 '반(反) 이기흥' 단일화 논의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 회장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막판 대반전이 일어나며 체육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다.

체육계 관련 부조리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의 갈등 속에 3선을 저지하려는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고, '체육계 변화'를 기치로 내건 유 당선인 쪽으로 바다 표심이 기울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 당선인은 2016년부터 지난해 여름 열린 파리 올림픽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고, 2019년부터는 탁구협회를 맡아 행정 경험을 쌓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국내 개최를 기념해

설립된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으로도 일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 나서며 공약으로 ▲지방체육회 및 종목 자립성 확보를 통한 동반 성장 ▲선수 & 지도자 케어 시스템 도입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젝트 ▲생활체육 전문화를 통한 선진 스포츠 인프라 구축 ▲글로벌 중심 K-스포츠 ▲대한체육회 수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자생력 향상 등을 제시했다.

유 당선인은 "많은 책임감이 느껴진다. 체육계 현안이 너무나 많다"면서 "저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체육인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과 힘을 합했을 때 가능하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유 당선인의 임기엔 2026 밀라노-코르티나패럴림픽 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가 줄줄이 열린다.

유 당선인은 굵직한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부당한 관행을 비롯한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분열된 체육계를 통합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연합뉴스



제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유승민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두 손을 들고 감사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정 "한국 최초 아시안게임 여자 500m 우승 욕심나"

쇼트트랙 500m·1500m 출전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최민정(성남시청)은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최초로 여자 500m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정은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쇼트트랙 사전 경기가 열린 13일 "8년 만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며 "2017 삿포로 대회 때 달성하지 못한 여자 500m 우승에 다시 도전해보겠다. 욕심나"고 말했다.

쇼트트랙 최단 거리 종목인 500m는 한국 선수단의 취약 종목이다.

순간 스피드보다 지구력과 작전에 능한 한국은 그동안 중장거리 종목에 집중했다. 그 사이 동계 아시안게임 여자 500m는 중국의 전유물이 됐다.

중국은 1990년 삿포로에서 열린 2회 대회부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까지 여자 500m에서 7회 연속 금메달을 휩쓸었다.

반면 한국은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한국 여자 선수의 동계아시안게임 500m 최고 성적은 1999년 강원 대회에서 최민경이 따낸 은메달이다.

최민정은 2017 삿포로 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 종목에서 우승하겠다고 근육량을 늘리고 스타트 훈련에 매진했다.

그러나 최민정은 꿈을 이루지 못했다. 준결승에서 중국의 견제 속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최민정은 8년 만에 한 맺힌 단거리 우승에 다시 도전한다.

동계 아시안게임은 그동안 개최 희망국이 없어 열리지 않다가 다음달 7일 8년 만에 다시 막을 올린다.

최민정은 "그동안 단거리 훈련을 많이 했다"며 "스타트 훈련은 물론 가속을 붙이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했고 상체 훈련과 웨이트훈련을 통해 힘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과 경쟁해야 할 것 같은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민정은 한국 선수단의 주 종목인 여자 1500m에서도 우승도 노린다.

그는 2017 삿포로 대회 때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한국의 이 종목 5연패 기록을 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6연패를 달성한다.

최민정은 "선배님들이 이어주신 길을 계속 이고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여자부 1000m 준결승 2조 경기에서 최민정이 스타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싶다"며 "한국 쇼트트랙 역사에 내 이름이 포함되면 참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획에 따라 대회 개막에 맞춰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컨디션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휴식과 재정비를 위해 2023-2024시즌 테크마크를 반납했다가 올 시즌 복귀해 제자리를 찾고 있다.

최민정은 "비시즌 목표했던 수준의 80% 정도를 달성한 것 같다"며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데, 차근차근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8년 전엔 도전자"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자리를 지키는 입장이"라면서 "경쟁 선수, 경쟁국에서 내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만큼 많은 기술 변화를 시도하면서 대회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신진서, 커제에 10연승...중국갑조리그 우승 전인

2023시즌부터 갑조리그 18연승

신진서 9단이 중국 바둑의 간판스타 커제 9단에 게 파죽의 10연승을 거두며 소속팀을 중국 갑조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다.

쑤보얼 항저우 소속의 신진서는 13일 오후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2024 중국갑조리그 챔피언결정전 최종 2차전 주상전에서 선전 룡화의 커제에게 304수 만에 5집반승을 거뒀다.

이날 흑을 잡은 신진서는 상변 흑 대마가 몰살당할 위기에 몰리는 등 중반까지 불리했다.

그러나 하변 백 대마를 끈질기게 공격해 패를 만든 신진서는 상변 흑 대마를 다시 살려내며 형세를 반전시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정규시즌 4위팀 쑤보얼 항저우는 신진서의 활약 속에 1차전에서 2-2로 비긴 뒤 2차전에서 선전 룡화를 3-1로 꺾고 갑조리그 정상에 올랐다.

신진서는 2024 중국갑조리그에서 정규시즌 9연승, 포스트시즌 6연승 등 15연승을 달렸다.

2023시즌부터 계산하면 무려 18연승이다.

중국 갑조리그 최다연승 기록은 은퇴한 이세돌 9단과 중국 진위청 9단이 공동 보유한 19연승이다.



또한 신진서는 커제를 상대로 2021년 11월 LG배부터 10연승을 달리며 확실한 천적으로 군림했다.

통산 성적도 15승 11패로 앞섰다.

선전 룡화 소속의 박정환 9단은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신진서에게 패한 데 이어 2차전에서도 세커 9단에게 불계패했다.

/연합뉴스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드론·뉴스포츠·태권댄스 3종목

광주시광산구장애인체육회(회장 박병규)가 겨울방학을 맞아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6주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

광산구체육회가 13일부터 '2025년 광산구 겨울방학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월 21일까지 하남 혁신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총 144명의 장애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참여한다.

장애 청소년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드

론, 뉴스포츠(보치아·셔플보드·핸들러), 태권댄스 등 3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주 5회(월-금) 시간표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양오영 광산구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방학에 소홀해질 수 있는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지도자들이 체계적이고 활력 넘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한편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24년 7월 '광산구 여름방학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장애 청소년의 외부활동을 늘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73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1회 정기연주회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
일시 : 2025-01-15(수)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613-8241

